

강상중의 《내셔널리즘》

역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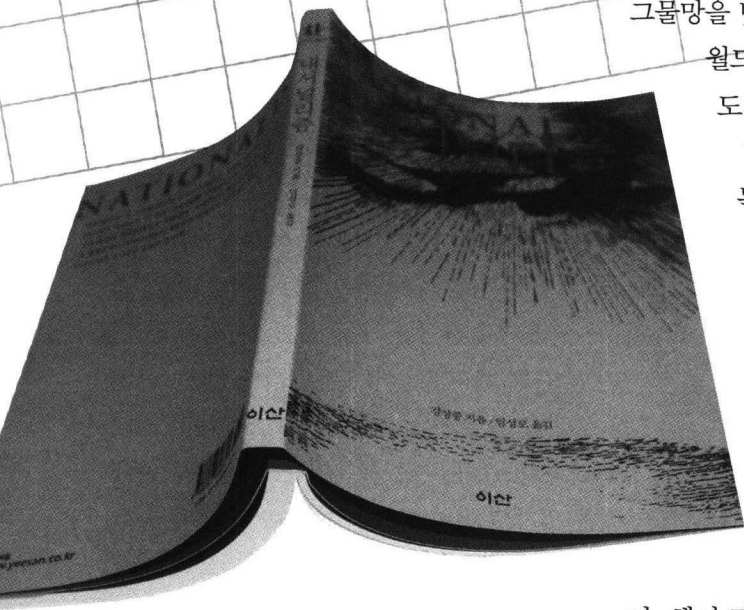
글_ 정여울

토고전을 보지 않았다. 월드컵 열풍에 저항하고픈 적극적인 심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다른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에 보내야 할 글을 쓰고 있었는데 당최 집중이 되지 않았다. 경기 진행상황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옆집 곳곳에서 들려오는 합성소리와 집 근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불꽃놀이와 응원소리 덕분이었다. 결국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월드컵의 짜줄과 미디어의 날줄로 단탄히 맺어진 촘촘한 정보의 그물망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월드컵에 모든 일상을 저당 잡힌 도시가 아니라 월드컵에 너무도 심드렁한 나 자신이었다. 1994년 USA 월드컵 때만 하더라도 나는 축구는 몰라도 애국심은 투철한 여고생이었다. 한국이 독일에 3:2로 패했던 그 경기 당시, 나는 엄청나게 더운 날씨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을 생각하며 나도 덩달아 일부러 때 아닌 긴팔 교복을 입고 점통 교실에 앉아 있었다. 그랬던 내가, 왜 이렇게 월드컵은 물론 애국심에도 시들해져버렸을까.

아마 그건 '책' 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가 애국심에 깃든 폭력을 배운 건 수많은 내셔널리즘 비판 이론서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요사이 나도 모르게 나를 사로잡고 있던 화두는 바로 그것이었다.

책이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책이라는 물건이 진정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통계적으로 보면 'No' 라는 대답이 훨씬 많을지도 모르지만, 내 마음 속에 각인된 체험들은 'Yes' 쪽이 훨씬 강렬했다. 정말 수많은 책의 힘이 아니었다면 사람이 저토록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 싶은 사람이 내게도 있다. M형을 통해 나는 인간이 '책'의 형태로 생산될 수 있는 모든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본다. 부모님 뿐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분위기에서 자라난 그 형은, '스무 살 이전'과 '스무 살 이후'의 삶이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사람들 중 하나다. 수많은 사회과학 이론서들의 자극으로 머릿속에 온통 '시뻘건 물'이 든 M형은 지금 그를 '의식화' 했던 그 어떤 선배들보다 더욱 해박한 이론가가 되어 있다. 그러나 나를 진정으로 감동시키는 건 그의 총명함이 아니라 그의 너른 '똥'이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최강의 범생이자 평생원이었던 M형이 이제는 누구나 의지해도 좋을 따스한 카운슬러가 된 것이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책은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



《내셔널리즘》 강상중 지음 | 임성모 옮김 | 이산 | 222쪽 | 값 12,000원

●이 글을 쓴 정여울은

'미디어 헌터'로 <문학동네> <한국문학> <씨네21> 등 여러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20세기 초 몽유약식의 달론적 특성 연구> <비정치성의 정치성, 비역사성의 역사성 - 이옥론>이 있으며, 공저로는 《이것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book+ing, 책과 만나다> <국민 국가의 정치적 상상력>이 있다.

정까지 변화시키는 마법을 지닌 것이라는 행복한 상상을 품어 본다.

이 달의 책으로 《내셔널리즘》을 선택한 이유도 전 세계 민족국가 간 파워게임의 대리전이 되어버린 월드컵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월드컵에도 그로 인해 표출되는 내셔널리즘의 열기에도 미동도 하지 않게 되어버린 나 자신을 해부하고 싶은 욕망이 나로 하여금 《내셔널리즘》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의 저자로 잘 알려진 강상중은 재일동포 2세로서 ‘자이니치(在日)’로서는 처음으로 도쿄대 교수로 임용된 화려한 약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가장 넘기 어려웠던 것은 오리엔탈리즘이나 내셔널리즘 자체가 아니라 ‘자이니치’라는 자신의 움직일 수 없는 태생적 한계였던 것 같다. 재일동포 1세였던 부모의 끔찍한 가난과 2중의 문맹(남의 나라에서 문맹으로 살아야 했던 고통)을 ‘불명예의 표식’으로 달고 살아야 했던 강상중, 아니 나가노 데츠오. 그는 와세다 대학 정치학과에 재학 중인 1972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고, 이후 자신의 존재를 새로이 인식하게 되면서 일본이름이 아닌 본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학문의 힘으로 그 태생의 한계를 극복한다. 오히려 ‘재일’ 이야말로 그 경계인적 속성으로 동북아 시대의 네트워크 구축에서 선구적 구실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내셔널리즘》은 그러한 존재론적 자각 이후의 이론적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국체’ 내셔널리즘의 ‘생산’ 과정에 이미 깃들어 있던 모순의 원형을 탐색함으로써, 일본의 국체 내셔널리즘이 현재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수정주의나 고이즈미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어떤 이론적인 토대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증명해낸다. 진정 그의 학문이야말로 그의 뼈아픈 ‘출신성분’의 상처를 극복하는 힘이었던 것이다.

이 책의 놀라움은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 혹은 ‘국체(國體)’ 내셔널리즘의 메카니즘을 해부하는 저자의 날카로운 이론적 감식안이 아니다. 일본적 내셔널리즘의 역사적 성과정을 파헤친 이 책에서 그가 일본과 한국에 대해 동시에 취하고 있는, 섬뜩하리만치 냉혹한 거리감이었다. 그는 엄밀히 말해 일본인의 정체성으로도 한국인의 정체성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표류하는 정체성’을 지녔고 그것이야말로 내셔널리즘에 대해 취하는 그의 절묘한 거리감각의 진원지였다.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에피소드 중 하나는 일본 문예평론의 대가 고바야시 히데오에게 보낸 가야마 미쓰로, 즉 이광수의 편지였다. 일본인이라는 존재는 국어

(일본어)라는 거대한 모태에 감싸임으로써 비로소 그 근원적 안식처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고바야시에게, 이광수는 이렇듯 처절한 SOS의 편지를 부쳤다.

옛 한국인이었던 조선인이 일본인이 되려면 대단히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이 일본인이 되려는 수행운동은 결코 정치적인 운동이나 수단으로서의 운동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일본의 거대함과 아름다움과 고풍을 인식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끌어올리는 것밖에 조선인의 활로가 없다는 것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조선인은 일본인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게 된 것입니다. (《내셔널리즘》, pp. 77-8)

‘차라리’ 뻗속 깊이 일본인이 되어 자신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려 몸부림쳤던 이광수. 그런데 정작 ‘우리’ 한국인의 뇌리에는 이광수의 존재가 숨겨야 할 역사적 치부이거나 비운의 천재로 낭만화 혹은 이상화되어 있다. 이광수는 그 상징적 대표주자일 뿐, 아마도 식민지 치하의 많은 조선인들이 이처럼 뿌리 깊은 내면의 소용돌이를 겪었을 것이다. 한편, 자이니치로서의 태생적 한계야말로 강상중에게는 일본인 고바야시에게도 조선인 이광수에게도 냉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 힘이었다.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다는 소외감은 역으로 그 두 가지 입장에서부터 모두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철저히 버려진다는 것은 무한한 자유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 진정 이토록 비참한 ‘우리’의 과거를 투명하게 응시하는 것이야말로 역사 공부의 화두는 아닐까. 사료의 과장이나 왜곡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료의 생략이나 배제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수정주의를 광적으로 비판하는 것보다 더욱 정직한 역사교육의 시발점은 바로 이렇게 적나라한 역사적 기록을 교과서에 싣는 용기가 아닐까. 일본과 호주 사이에 벌어진 축구경기가 우리에게 ‘그들’ 일본과 ‘우리’ 히딩크 사이의 접점으로 비쳐졌으며, 그 경기의 일본 현지 시청률보다 한국측의 시청률이 높았다는 이 ‘부끄러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 만큼이나 ‘일본이 지는 것’에 열광하는 한국인들에게 잊혀진 역사적 기억의 퍼레이드가, 이 책 《내셔널리즘》에는 조용히 숨쉬고 있다. 어린 시절 강상중과 한국인 백부 사이의 대화 역시 그 중의 하나다. “삼촌, 왜 헌병 같은 걸 하셨어요?” “여위고 늙어서 앙상해진 조국인 채로 있을 바에야 차라리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누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거든. 그 편이 내게도 행복일 거라고 생각했다.”